

“日 디플레·엔高 누그러뜨린 아베노믹스, 6월 나올 성장 정책에 성패 달렸다”

日 노무라연구소 '최고 브레인' 고노모토 본부장이 본 아베노믹스



노무라연구소의 2인자인 고노모토 본부장은 “한국과 일본의 정치적 상황이 향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이라고 말했다. 30년간 기업 조사·분석 업무에 종사해 온 그는 현재 전 세계 650명의 컨설턴트와 애널리스트를 지휘한다. 노무라연구소는 1965년 설립된 일본 최대의 민간 싱크탱크(Think Tank)다. / 노무라종합연구소 제공

“박근혜 대통령의 ‘창조 경제’나 아베 총리의 ‘아베노믹스’나 결국 맥락은 비슷하지만, 최근 상황을 보면 아베 총리 쪽의 성공 가능성이 더 높은 것 같습니다.”

한낮 기온이 섭씨 23도까지 올라 초여름 날씨였던 지난 8일 도쿄. 도쿄역 바로 옆에 있는 노무라종합연구소 본사 건물 9층에서 노무라연구소 최고의 ‘브레인’이라는 고노모토 신고(53) 컨설팅사업본부장을 인터뷰했다. 한국과 일본의 산업 전망을 묻는 말에 그는 곧바로 정치 문제부터 들고나왔다.

“결국 박 대통령이나 아베 총리나 자국 산업 구조를 업그레이드해서 세계시장에서 주목받을 만한 새로운 기업과 기업인을 키워내 경제를 살리겠다는 겁니다. 국가가 한 단계 도약할 기반을 만들겠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한국은 진전이 안 되는 반면, 일본은 상대적으로 훈풍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는 “올해는 앞으로 한국과 일본의 10~20년을 결정지을 아주 중요한 시기”라면서 “양쪽 정부의 성장 전략이 제대로 실행될 수만 있다면, 앞으로 엄청난 비즈니스 기회가 두 나라를 기다리고 있는데, 기회를 보고도 잡지 못한다면 두고두고 큰 후회로 남을 것”이라고 했다.

인터뷰는 저녁 7시부터 세 시간 동안 진행됐다. 학자 타입 외모에 작고 나직한 목소리였지만, 어떤 주제에 대해서도 막힘이 없었다.

◇아베노믹스 성패 6월에 결정 난다

—아베노믹스로 일본이 정말 부활할 수 있을까?

“지금까지 3년간 민주당 정권에서는 디플레이션과 엔고라는 두 가지 문제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거의 하지 못했다. 그런 의미에서 아베의 정책에 대해서는 일본 국민도 상당히 공감하고 있다. 다만 확실히 기업 실적이 올라가지 않은 상태에서 기업이 앞으로 좋아질 것이라는 것을 주가가 미리 반영하고 있는 상태이다. 일본 경제가 실제로 빠르게 개선될 것인지는 아직 알 수 없다.”

—아베노믹스를 간단히 설명한다면.

“아베노믹스를 받치고 있는 세 가지 ‘화살’이 있다. 재정 지출, 금융 완화(양적완화), 성장 전략이다. 수요와 공급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일본은 수요가 제대로 일어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가 컸다. 2013년 예산이 편성됐는데, 100조엔 규모다. 100조엔 넘은 것은 처음이다. 일본 GDP가 500조엔 정도이기 때문에, 재정 지출 100조엔은 규모가 매우 큰 것이다. 민주당 정권 때와 비교해 보면 매우 크다. 재정 지출이 단기적으로는 일본 경기 부양에 도움이 되겠지만, 이 때문에 일본 정부 부채가 1000조엔을 넘어 가게 되기 때문에, 어떤 단계에 가서는 재정 건전화를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이런 속도로 재정 지출을 계속하게 되면, 일본 국채 가격의 폭락을 불러올 수 있다.”



— 금융 완화 문제는 어떤가.

구로다씨가 일본은행 총재가 됐는데, 지금까지와는 다른 금융 완화, 생각도 못했던 일들이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일본은행이 해외 채권을 사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해외 채권을 사기 위해 엔을 팔고 달러를 사서 그 달러로 해외 채권을 구입하게 되기 때문에 일본은행이 엔을 내다 파는 것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양새가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지금보다도 더 엔저가 진행될 가능성이 커진다. 물론 이런 경향이 너무 빠르게 진행될 경우에는 아까 지적했던 여러가지 문제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일본은 기대 성장률이 매우 낮다는 문제가 있다. 이노베이션으로 수요를 끌어내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정책을 쓰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이 마지막 셋째 화살이다. 이에 대한 정책 방향이 올 6월쯤 나오게 될 것이다. 여기에서 유효한 정책이 나와야 하고, 아베 총리가 여기에 총력을 다할 것이다.

첫째 화살과 둘째 화살이 무한정 지속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 셋째 화살(성장 전략)이 얼마나 효과를 거둘 만한 내용으로 나올 것인지가 앞으로 일본 경제의 성장을 좌우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만약 시장이 기대하고 있는 성장 전략이 나오지 않는다면 '아! 일본이 재정 지출과 금융 완화는 할 수 있어도 역시 본질적인 성장 전략에는 손대지 못하는구나' 하는 인식을 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기대 심리에 기대 크게 오른 주가도 단번에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실효성 있는 전략이 나온다면 일본 경제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수 있을 것이다."

— 6월에 뭔가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본다는 얘기인가?

"일본이 결국 이대로 머무를 것인지, 아니면 규제 완화를 통해 경쟁 환경으로 갈 것인가는 6월이 되지 않으면 모른다. 재정 지출과 금융 완화는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셋째 화살, 즉 성장 전략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가 지금부터 관전 포인트다."

—한국의 새 정부는 정책 수립과 실행에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을 만들어도 실현 못 하면 의미가 없다. 결국 정적(政敵)을 설득해 나가면서 정책을 관철하는 게 정치다. 지금 상황을 보면 일본 정치에서 이렇게 좋은 시기는 일찍이 없었다. 아베의 대항 세력이 현재 없다. 민주당 쪽이 거의 무너져 버렸기 때문이다. 또 하나는 아베가 취임해서부터 취한 아베노믹스라는 것이 성과를 내고 있다. 결과적으로는 경제가 회복되기 시작했고, 주가도 오르고 있고, 부동산 가격이나 개인 소비도 다시 회복세다. 아마도 이후에 설비 투자까지 회복된다면, 2013년 경제는 매우 좋은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이 정도로 결과가 나오고, 정치적으로 적이 없는 상황은 최근 일본 정치에서 본 적이 없다. 그런 의미에서 아베가 하고 싶은 것들을 정치적으로 타협하기에는 아베로서도 일본으로서도 일생일대의 기회다. 일본 경제 관료들은 지금 상황에 매우 기대를 걸고 있다."



◇한국, 지금이 절호의 기회

—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은 창조 경제와 중소기업 육성을 통해 문제를 돌파하고 싶어 한다. 앞으로 어떤 쪽에 집중해야 할까.

"지금부터 10년 후, 15년 후를 생각해 보라. 답은 뻔하다. 에너지, 환경, 그리고 요즘 한국에서도 이슈가 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등이다. 여기에서 앞으로 수많은 이노베이션이 일어날 것이다. 클라우드 컴퓨팅으로 네트워크 비용이 엄청나게 떨어지게 되면 거기에서 또 여러 비즈니스 모델이 생겨날 것이다. 또 세계적인 고령화에 따라 헬스케어 분야에서 많은 이노베이션이 일어날 것이다. 마지막은 농업이다. 인구가 점점 늘어나니까 농업에서도 세계적인 레벨에서 이노베이션이 예상된다. 정확히는 모르지만, 박 대통령이 생각하는 창조 경제라는 것도 이런 맥락이 아닐까 생각한다.

일본도 이런 큰 이노베이션을 맡을 곳은 도요타 같은 대기업이 아니라, 아이디어와 정열을 갖고 있는 벤처기업일 거라고 본다. 그런 기업 중에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기업이 나와줬으면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보자. 카카오톡과 비슷한 스마트폰 앱으로 일본에서 '라인'이라는 앱이 인기를 끌고 있다. 한국 기업(네이버)이 만들었다. 나를 포함해 일본에서 많이 쓴다. 이런 쪽이라면 일본을 포함해 전 세계에서 통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에 가능성이 높은가.

"지금은 한국에 큰 찬스다. 지금까지 글로벌 기업의 성장 전략은 1970~1980년대 만들어진 구조의 연장선에 있다. 그런데 지금부터 에너지, 환경, 농업, ICT, 네트워크 등에서 세계적인 규모로 비즈니스 기회가 생길 것이다. 한국은 마음먹기에 따라 이 부문에서 최고의 경쟁력을 발휘할 능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 한국 기업은 엄청나게 활력이 있다. 한국은 일본에 비해 국내가 아니라 해외에서 성공해 보겠다는 기업가도 많다. 엄청난 강점이다. 한국 정부가 이런 인재들을 제대로 정책적으로 뒷받침해 줄 수만 있다면, 한국발 벤처기업이랄까 아이디어 기업이 계속 탄생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다만 정치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의 실행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이 매우 안타깝다."

아베노믹스
일지

2012년	11월 14일	노다 전 총리, 중의원(미국의 하원과 유사) 해산 선언
	19일	아베 "집권하면 윤전기 돌려서라도 무제한 돈 풀겠다"
	12월 16일	자민당, 총선(중의원 선거) 압승. 의석의 3분의 2 이상 장악
	26일	아베, 총리에 선출. 아베 내각 출범
2013년	1월 11일	13조엔의 추가경정예산 등 담은 '긴급 경제대책' 발표
	22일	일본은행 '물가목표 2%' 발표
	2월 11일	리얼 브레이너드 미 재무차관, 아베노믹스 지지 표명
	3월 11일	구로다 일본은행 총재 내정자 "금융 완화, 조기에 심의하겠다"
	15일	아베 총리 TPP(한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참가 선언
	6월	일본 정부, 세 번째 화살인 경제 성장 전략 발표 예정
	7월	참의원(미국의 상원의원과 비슷) 선거 예정. 자민당, 선거 압승으로 성장 전략 뒷받침할 법 개정 및 TPP 통과 노려

◇일본기업, 절체절명의 위기 느끼고 있다

— 이런 기회의 시대에 일본 기업들의 대응 전략은?

"한국에서는 리더가 오른쪽이다 하면 전부 오른쪽으로 가지만, 일본은 부장 레벨에서 힘을 내는 구조다. 그런데 현재 그런 부분이 힘을 잃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도요타에 '크라운'이라는 대형 세단이 있는데 이번에 나온 신차의 키워드가 '재탄생'이다. 거대 기업 도요타조차 다시 태어나겠다는 것이다. 후지필름은 필름시장이 사라지면서 적자를 냈지만, 코닥처럼 무너지지 않고 의료·헬스케어 중심의 회사로 바뀌어 더 잘되고 있다. 지금 일본엔 후지필름처럼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체절명의 위기의식을 느끼는 기업이 엄청나게 많다."

◇중국에서 사업하기 점점 어려워진다

—중국 기업의 경쟁력 수준은 어떤가.

"중국 시장이 워낙 크다 보니 시장을 보고 들어간 일본 기업이 많다. 삼성이나 현대차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중국 기업의 실력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게다가 시진핑 시대로 오면서 '경제 내셔널리즘'이라고 할까, 중국 회사를 정부가 백업(back up)하는 방침이 더욱 노골화하고 있다. 이것은 일본 기업이나 한국 기업이나 마찬가지다. 중국에서 국내 기업과 외국 기업 간의 경쟁이 몇 년 전에 비해서도 엄청나게 힘들어지고 있다. 앞으로는 훨씬 더 힘들어질 것이다. 중국에 돈을 넣어서 더 이상 이익을 낼 수 있을까? 중국 기업을 이길 수 있을까? 냉정히 생각해 보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게 일본 기업들의 기본적인 생각이다."

“삼성전자와 한국의 경쟁력 혼동하지 말라”

“삼성전자의 경쟁력과 한국의 경쟁력을 혼동하지 마십시오.”

고노모토 본부장은 “일본에서 한국 산업을 보는 눈은 명확히 구분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삼성전자의 경쟁력을 얘기하는 것과 한국 제조업의 경쟁력을 얘기하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삼성전자는 일본의 모든 전자회사가 모두 합쳐서 덤벼도 이길 수 없는 엄청나게 뛰어난 회사이지만, 일본 업계의 관심이 오로지 삼성전자 단 한 곳에 집중돼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는 “반대로 얘기하면 삼성전자 이외에는 일본 기업을 두려움에 떨게 할 한국 회사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라면서 “이것은 한국에 큰 리스크일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예전에는 한국 경제 전반에 대해 논의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삼성전자라는 존재가 압도적”이라고 덧붙였다.

삼성전자와 일본 주요 전자회사의 실적 단위: 원

	삼성전자	소니	파나소닉	샤프
매출	201.1조	76.2조	84.3조	28.4조
영업이익	29.1조	1.5조	1.6조	-1.8조

* 삼성전자는 2012년 실적보고서 기준
일본 업체는 2012 회계연도(2013년 3월 결산) 최종 전망치 기준.
환율은 14일 기준. 자료: 각 회사

일본 업계에서 삼성전자를 바라보는 시선은 공포, 경외, 부러움, 분노 등이 뒤섞여 있다. 1980년대 반도체, TV를 기반으로 '전자입국(電子立國)'을 이뤘지만, 1980년대 후반 D램 반도체가 삼성전자와의 경쟁에서 무너졌다. 일본 전자업계는 '기술력은 여전히 일본이 최고'라고 자신했다. 삼성으로 D램 반도체 주도권이 넘어간 이후에도 '타도 삼성'을 외치며 일본의 모든 메모리 반도체 기술과 역량을 집결해 일본 반도체 연합군 '엘피다'를 만들어 삼성과의 결전을 준비했다. 그러나 유일하게 남았던 엘피다가 작년 초 파산 신청을 하면서, 이 같은 계획 자체가 무너져 버렸다. 최근 2~3년 동안 산요가 무너졌고, 샤프·소니·파나소닉 등 일본을 대표하는 가전 기업들도 삼성에 밀려 수조원대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갤럭시 시리즈로 대표되는 삼성 스마트폰이 세계 시장에 순식간에 대량 보급되면서 일본이 자랑하는 디지털카메라, 휴대용 멀티미디어기기, 휴대용게임기 시장마저 무너져 내린다는 분석까지 나온다.

그러나 그는 “삼성이 앞으로 5년, 10년 계속 성장할 것인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면서 “지금까지 TV·액정·휴대전화·스마트폰으로 성공해 왔지만, 그다음을 이끌 수 있는 제품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삼성전자가 지금까지 해 온 것처럼 큰돈을 벌 수 있는 대형 사업이 쉽게 나오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스마트폰 비즈니스의 경우는 중국이나 대만이 무섭게 쫓아오고 있어 지금처럼 고수익을 내기가 쉽지 않다고도 했다.

그는 일본의 전자산업이 다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회의적이었다. 샤프는 수년 전까지만 해도 기술적으로 뛰어난 회사로 평가받았지만, 최근 매우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다. 2~3년 동안 실적이 급속히 나빠져 최근 타이완의 흥하이로부터 출자를 받는다는 발표가 있었다. 지난주에는 삼성이 샤프에 출자한다고 발표했다.

고노모토 본부장은 “샤프만이 아니라 파나소닉, 소니도 최근 엄청난 적자를 냈다”면서 “아무리 엔저 훈풍이 분다고 해도 일본 전자산업의 구조 자체를 근본적으로 개혁하지 못하면 지금의 어려운 상황이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산업의 기반이라는 측면에서 일본이 한국에 위협을 느낄 만한 부분은 많지 않다고 했다. “특히 화학, 재료, 소재 부문은 한국에 비해 일본이 매우 강합니다. 한국의 대일 무역 적자의 가장 큰 원인이 부품과 소재 부문의 무역 적자 때문이지요. 일본으로부터 수입에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되는 구조입니다.”

그는 “일본의 소재부품 산업도 현재 좀 더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다각도로 고민하고 있지만, 적어도 한국이 참고 대상은 아니다”고 말했다.